KiRi Weekly 2014.10.20

글로벌 이슈

에볼라와 세계적 유행성질병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해랑 연구원

■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이하 에볼라)의 확산으로 201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감염자가 8,399명, 사망자가 4,033명이라고 발표함.[1)]

- 에볼라는 지난해 기니 동부에서 발견된 이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세네갈과 스페인, 미국까지 감염자가 나타났으며 지난 8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함.
- WHO는 14일 에볼라에 대한 추가 발표를 통해 통계적으로 에볼라의 치사율은 약 50%이지만 에볼라가 확산되는 국가에서는 치사율이 사실상 70%에 이른다고 밝힘.

■ 미국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은 에볼라 확산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2)]

- III는 에볼라 확산이 생명·건강보험 산업에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에볼라 확산이 지속될 경우 비용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에볼라 확산은 생명보험회사들에 지급보험금 증가에 따른 단기적 이익 감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감염이 심각한 아프리카 국가들(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의 낮은 보험 가입률과 미국 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재보험을 통한 위험 분산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에볼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그러나 III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명보험 가입 시 에볼라 감염여부 검사비용과 에볼라 감염 후 치료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가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함.
- III는 에볼라 확산이 손해보험 중 배상책임 보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III는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질병 및 환경 관리,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배상보험금 지급 요청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에볼라는 근로자 의료비, 소득상실 보장, 사망 보험금에 연관된 근로자보상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해보험회사들 역시 재보험을 통해 손실을 대비하고 있음.

1) WHO(2014. 10. 10), "Ebola response roadmap update".
2) III(2014. 10. 13), "Insurance Industry Ramifications of the Spread of the Ebola Virus".

■ Ⅲ의 보고서는 에볼라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나 이번 에볼라 확산으로 세계적 유행성질병(Pandemic Disease)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 에볼라의 감염 및 확산 속도를 고려했을 때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세계적 유행성질병' 단계로의 격상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세계적 유행성질병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며,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 예방조치 등으로 과거와 달리 심각한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피해의 확산속도는 빨라지고 있음.
- 세계적 유행성질병은 발생확률은 희박하지만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여 보험금 지급액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임.
  - 1918년 스페인독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4~5천만 명이 사망하였고, 1957년 아시아독감과 1968년 홍콩독감은 100~400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으며,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2만 명이 사망하였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미 세계적 유행성질병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들 역시 세계적 유행성질병이 국내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고려해야 함.

- 스위스리(Swiss Re)는 2004년, 뮤니크리(Munich Re)는 2008년에 세계적 유행성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급증 리스크를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에 이전하였으며 이러한 대재해채권은 2003년 12월 이후 2014년 3월까지 36개 종목에 이르고 있음.[3)]
  - 외국 일부보험회사에서는 상품가치 분석 시 세계적 유행성질병으로 인한 Pandemic risk를 함께 검토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 역시 에볼라를 포함한 세계적 유행성질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
  - 특히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세계적 유행성질병 피해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보험리스크 산출 시 Pandemic risk 반영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보험회사는 사망률을 연계한 채권 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등 세계적 유행성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WHO, Ⅲ 등)

3) 생명보험협회(2014. 8), 『생명리스크의 대재해채권발행가능성』 재인용; AON(2014. 7. 8), "Insurance Liked Securities, Second Quater 2014 Update".